

# “우리가 오케스트라 주인공”



서울시민필로케스트라

악기 하나 짚 연주해 보는 건 누구나 품고 있는 꿈이다. 최근에는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직접 악기를 배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 혼자 연주하는 대신, 함께 앙상블을 조직하거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화음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는 이들도 많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져 직장인 오케스트라, 가족 오케스트라, 다문화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형태의 오케스트라 활동도 활발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시민오케스트라프로젝트-장롱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생활음악이 활성화되면서 남녀노소 악기를 배우고 함께 즐기는 이들이 많아져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작은 씨앗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준비한 프로젝트로 세미나, 시민오케스트라 경연, UN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오프닝 세미나 ‘생활 속 음악, 음악과 커뮤니티’는 3일 오후 1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B1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주대장(광주교육대 음악학과 교수·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씨가 좌장을 맡고 이석원(서울대 음악학과 교수)씨가 ‘음악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또 김정선 (ACC 시민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예술감독)씨가 ‘광주·전남 시민오케스트라 현황’에 대해, 박승현(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씨가 ‘생활음악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박호재 (아시아경제신문 부사장), 서지혜(인컬처컨설팅 대표)씨가 각각 ‘시민오케스트라를 위한 지역 공간의 재해석’, ‘지역기반 생활음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 문화전당 ‘시민오케스트라 프로젝트’

3일 ‘생활 속 음악 ...’ 세미나로 시작  
서울시민필·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10월 15일 시민오케스트라 경연

26일 UN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초청공연 ‘문’이 열리고 음악이 시작된다! 서울시민필하모닉과 함께는 오후 4시~5시30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목포 합동공연이 열리며 2부에서는 서울시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갖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배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음악도로 육성한 ‘엘 시스템마(El Sistema)’를 본따 만든 것으로 소외계층과 일반 가정 초등생들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민필하모닉은 세종문화회관과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KOAMA)가 함께 추진해 온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에서 출발했으며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Orchestra for All)란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은석씨가 지휘하는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조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아리아 모음곡, 존 윌리엄스의 영화 ‘스타워즈’ 모음곡 등이다.

10월 15일에는 시민오케스트라 경연이 열린다.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성인 아마추어오케스트라 단체 9팀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이 열렸고 모두 6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26일에는 UN 직장인오케스트라 공연도 열린다. 스위스 제네바를 본거지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 직원 약 6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는 시민오케스트라는 이날 UN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01-46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유·불·선 천년의 전쟁 다룬 소설 출간

화순 출신 신지전 작가

‘천년의 전쟁 1·2’ 펴내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종교 간의 다툼은 피할 수 없다. 우리 역사를 봐도 종교를 둘러싼 전쟁은 늘 끊이지 않았다.

유·불·선 간의 천년에 걸친 전쟁을 다룬 소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화순 출신 신지전 작가가 펴낸 ‘천년의 전쟁 1·2’(새움)는 16세기 조선에 무대로 펼쳐졌던 유·불·선 사이의 다툼을 흥미진진하게 펼쳐낸다.

신 작가는 “2년 전 대하소설 ‘서산’을 펴낸 바 있지만 어려운 불교 용어와 도교 유향의 용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자료들을 충분히 소화해 새로운 소설로 형상화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의 자생적 사상이었던 선도(仙道)는 삼국시대부터 불교에 주도권을 내준 상태였다. 고려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불교는 조선조에 들어서 성리학에 패권을 빼앗겼다. 그로 인해 오랜 전통을 지닌 불교와 선도는 유교의 폭압으로 깊은 산중으로 자취를 감췄다.

소설은 맥이 끊기지 않았던 불교와 선도가 16세기에 이르러 젊은 선승들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한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어지러운 혼란기에 왕의 기운을 받은 여신이라는 인물이 태어난다. 그는 후일 서산(西山)이라

불리게 되는 휴정(1520~1604)으로, 불교와 도교의 영웅들을 규합해 패권을 쥐 유교와 문명시적 전쟁을 벌인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임진왜란 발발로 유·불·선 간의 전쟁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진전한다. 조선왕조는 풍전 등화의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휴정은 승려들을 승군으로 결집해 조선왕조의 왕권을 잇게 한다.

소설은 정심선사로부터 지엄, 영관을 거쳐 서산으로 이어지는 조선 초기 선불교의 흐름을 심도 있게 그려낸다. 산 중의 외딴터 암자에서 얻는 선불교의 깨달음이 어떻게 민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신 작가는 “이 소설이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한 영웅의 일대기나, 단순한 역사 소설로 읽히는 걸 원치 않는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치지 않을 종교 간의 다툼일 수도 있고,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국가 간의 전쟁과 도를 이루려는 수행자들의 끊임없는 육도만행의 실천수행으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방울국악진흥회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국악’

6일 대구서 명인·명창 120명 참여 메머드급 공연

10월엔 광주 금남로 공연도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올 한 해 동안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국악’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전통국악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임방울국악제 수상자와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4월 1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첫 공연을 가진 데 이어 매달 한차례 광주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5·18 민주광장 등에서 공연을 갖고 있다.

공연은 풍물 판곡, 무용, 가야금병창, 기악 산조, 판소리,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장르로 진행된다.

9월 6일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무대는 명인·명창 등 120명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공연으로 눈길을 끈다.

김병조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정의진·최연자·김미나·김향순·김명남·김찬미·차복순·서정민·노해연씨 등 역대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무대를 꾸민다.

또 조상현, 강정숙, 김덕수, 김영임, 김용우씨 등 유명국악인들의 무대와 조통달·조관후·조현씨가 꾸미는 무대



김영임



강정숙

도 관심이 높다. 그밖에 대구시립국악단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영남풍물문화연구소 풍물예술단 등도 호흡을 맞춘다.

10월 22일과 11월 26일에는 다시 광주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앞 특별 무대에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무등산 자락에 민요·재즈·대금의 선율

전통문화관 3·4일 상설공연

무등산 자락에 민요와 재즈, 대금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9월 첫 주말상설공연으로 3일과 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소리설탁(대표 김산숙)의 ‘민요와 재즈 무등산에서 춤을 추다’, ‘여울림(대표 채광자)의 ‘저, 저 대를 품다’ 공연을 차례로 선보인다.

상설공연 ‘민요와 재즈 무등산에서 춤을 추다’에서는 민요 ‘갑돌이와 갑순이’를 비롯해 국악가요 ‘너영니영’, ‘장타령’을 재즈선율에 맞춰 들려준다. 미국 가수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작품들

새롭게 변주해 무대에 올린다.

‘소리설탁’은 국악을 전공한 연주자들과 재즈를 전공한 이 지역 음악인들로 구성된 팀. 소리 김산숙 대표를 비롯해 판소리 봉선화, 가야금 허혜진, 색소폰 박정일, 건반 김아름, 베이스 기타 서원, 드럼 주정식 단원이 출연한다.

일요상설공연 ‘죽! 첫대를 품다’는 국악 가곡 연주의 종류인 경품년·변조두거, 염양춘·계면두거와 남도민요\_보령과 즉흥성이 특징인 서용석류 대금산조 등 대금연주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 문의 전통문화관 062-232-159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여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の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